

제주 조생양파 농가 돕기 민-관 맞손

농진청, 현대백화점·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양파 소비촉진 기획 판매전

제주산 저장 양파의 도매가격이 작년 대비 80%나 폭락하면서 다음달까지 제주지역 조생양파 44헥타르에 대한 산지폐가가 이뤄지는 가운데, 최근 출하가 시작된 제주산 조생양파의 도매가격도 60% 이상 떨어져 농민들은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시름을 앓고 있는 제주지역 조생양파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한 가운데 민-관이 손을 잡고 나

섰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현대백화점,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제주 조생양파 재배 농가를 위한 판로 확보와 양파 소비촉진을 위한 기획 판매전을 지난 1일 시작했다. 이번 기획 판매전은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을 포함한 전국 16개 점포 식품관에서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현

대백화점은 제주산 조생양파 10여 톤을 매입할 예정이며, 양파 1㎏(1.8kg 내외)을 2,900원에 판매한다. 농진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이번 기획 판매전으로 양파 재배 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유통업체와 협력해 판로 확대를 모색하고, 소비 촉진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식품사업부 이정훈 선임

바이어는 "최근 양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배 농가를 돕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 농업인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진청과 현대백화점은 경남 합천지역 양파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우리 농가와 함께하는 양파 페스티벌' 행사를 현대백화점 전국 16개 점포 식품관에서 열어 양파 10톤을 판매한 바 있다. /최대희 기자

“농촌일손부족 해소 현장에 인력 집중 투입”

전북농협, 범농협 계열사와 '영농지원발대식' 개최 농산물 소비촉진 활동도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 시너지협의회는 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지부장 송혁), 삼례농협(조합장 강신하)과 함께 '2022년 영농지원발대식'을 임직원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일 완주군 삼례읍에서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촌인력 부족 해소와 청년농사 기원을 위한 발대식이 이어 삼례읍 일원에서 수박 순따기 작업을 실시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현재 농촌 현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올해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이 제한적이고,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전북농협은 다가오는 영농철을 대비해 본격적인 일손돕기 출발을 알리는 영농지원발대식을 개최하게 됐다.

정재호 본부장은 "전북농협은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농촌현장에 인력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북농협은 지역의 농산물도 구매하는 등 농산물 소비촉진 활동도 이어갔다. 또한 고흥하림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고흥하림기부제 답례품을 지역농축산물 중심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범농협 계열사와 함께 농정활동을 추진해주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윤상 기자



서부산림청, 남원 인월서 유관기관 산불진화 합동훈련

서부지방산림청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삼봉산 일원에서 유관기관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서부지방산림청, 남원시, 남원소방서 등이 참여, 각 기관별 협업체계 점검 및 보완을 통해 초동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산불장비 운영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산불 대응능력을 제고했다.

훈련 순서는 산불현장지휘본부 설치·구성, 산림드론 및 산불재난안전통신기운용,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기계화시스템 운영 및 소방 급수지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지상진화 및 잔불정리 훈련 순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이경호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서부청과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산불 재난대응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발생시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북농협과 전북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8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에서 전북 원예농산물 광역브랜드인 '예담채'를 선보였다. (사진=전북농협 제공)

‘광역브랜드 예담채, 믿고 먹을 만 합니다’

도-전북농협, 부산 벡스코서 개최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서 예담채 농산물 선보여

전북도(도지사 송하진)와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부산 벡스코에서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되는 '제8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에서 '예담채' 농산물을 선보였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수박, 토마토, 감자 등 20여 품목의 원예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 전북도에서 개발한 구수한 향기가 나는 예담채 십리향 쌀 등을 선보이고 전북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이번 행사 참여는 전

북지역 우수농산물을 소개하고 8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과 '농식품부 과수산업발전계획(FTA) 연차평가 2년 연속 최우수등급'에 선정된 전라북도 원예농산물 광역브랜드 '예담채'를 식품관련 바이어 및 전국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진행했다.

전북농협은 "전북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농산물 홍보·마케팅 강화로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첫 여성 트로이카 시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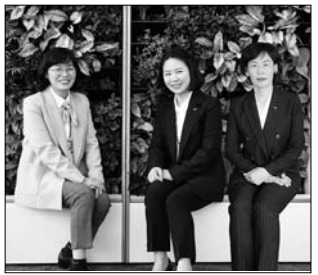
LX, 여성 관리자 육성... 3명이 핵심 보직 맡아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이하 LX공사)는 '실력·성과 검증 인사'를 통해 첫 '여성 트로이카 시대'를 열었다.

지난 1일 LX공사에 따르면 김정렬 사장은 지난 1일 인사와 이달 인사를 통해 주무부서 관리자 자리에 원보영 안전관리처장, 조현정 표준품질처장, 김미정 공공사업부장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재직년 차사 43년 만에 첫 여성 임원으로 발탁된 오애리 경영이사까지 더해 여성 관리자 시대를 열었다.

원보영 처장은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관리자로서 경기지역본부 본사 주요 보직을 거쳐 경기 의정부 용인서부지사장 등을 역임해 현장오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중론이며, 조현정 처장은 LX공사의 핵심 거점 본부인 서울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에서 공간정보사업에 맡아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 공간정보 품질관리라는 핵심 보직을 맡았다. 아울러 김미정 부장은 경남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를 거쳐 본사 지적사업실의 전라과였으며,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공간정보사업의 신사업 발굴과 실행력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현장 중심 업무로 남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LX공사는 최근



4급 이상 여성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67개 지사 중 15명의 여성 지사장을 포함해 팀장급 이상의 여성 관리자들이 2018년 71명, 2019년 88명, 2020년 91명, 2021년 99명, 2022년 107명인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여성 관리자 비율은 7.2%까지 올라갔다.

한편 공사는 여성 관리자들에게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능력과 성과를 검증하는 기회를 확대해 왔다. LX공사 최규명 부사장은 "그간 능력과 성과를 입증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여성 관리자 발굴을 위해 시스템을 정비했다"며 "여성 관리자들을 전진 배치해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전북농협, 전북도회 운영위원회 회의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방섭)는 지난 1일 '2022년 제2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운영위는 '제64회 정기총회'를 오는 19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총회에 상정할 ▲2021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안 ▲2022년 회계연도 사업계획 ▲예산안 대표회원제 운영 ▲선출직정 개정안 등을 사전에 심의했다.

윤방섭 회장은 "코로나19 인한 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어들고, 정부의 업역 개편과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개편으로 수주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졌다"며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건설물량 확대를 한층 더 강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대희 기자

무료 기업경영 전문가 상담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전정희)가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직종문화개선 찾아가는 기업경영 전문가 상담 참가기업(무료)을 모집한다.

이번 추진하는 직종문화개선 찾아가는 기업경영 전문가 상담 사업은 여성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준수, 모성보호제도 등이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 인사·노무, 세무·회계 분야 등 각 분야별 전문가 3인을 맞춤형으로 파견, 지원한다. 기업 경영 전문가 상담 지원 사업은 정부지원정책 등 정보에 취약한 도내 군 단위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다. /정은성 기자

올바른 봄철 초지 관리법은?

농진청, 생육상태 20cm 방목 실시 윤환방목이 초지 관리에 효율적

국내 전체 초지면적 절반에 가까운 1만6,006헥타르가 가축을 풀어 키우는 방목초지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초지 관리법에 따라 풀사료 생산성을 높이고 가축 방목 기간도 늘릴 수 있으며, 초지의 탄소 흡수 능력이 30% 이상 높아져 온실가스 줄이기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시간이 지난 뒤 다른 구역(목구)으로 이동시키는 윤환방목을 실시하면 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우선 방

목초지를 5~10개의 구역으로 나눈 뒤 목장 울타리를 정비한다. 한 구역에 가축이 머무는 시기는 20~30일 정도로 하며, 목초 높이가 평균 5~10cm정도까지 낮아지면 다른 구역으로 옮긴다.

아울러 방목이 끝난 구역은 가축이 먹지 않는 잡관목과 잡초를 제거해주는 청소배기를 실시해 목초 이용률을 최대 27%까지 높일 수 있으며, 생산성도 19%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이 토양에 환원될 수 있도록 갈퀴로 흩어주는 것이 좋다. 젓소 5마리를 방목할 경우, 연간 100kg 정도의 질소 환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계로 풀을 수확하는 체초지보다 질소비료를 48%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한우를 방목해 키우는 순영수 농장주(전북 정읍시)는 "소를 방목하면 사료값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다"며 "올해는 소들이 초지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방목초지 생육관리에 더욱 신경 쓸 것이다"라고 전했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천동원 초지시료과장은 "방목초지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간 방목초지 관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대희기자

시험분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진원, 10일까지

전라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용)은 도내 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험분석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이달 10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공인시험분석기관 등을 통해 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또는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성분, 성능 등을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제품 및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3차례(4월, 7월, 11월) 지원계획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도내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50인 이하 제조·서비스 기업이며, 제품 성능 또는 성분 분석, 영양 성분 분석, 신뢰성 평가 등을 3월 31일까지 완료한 것에 대해 평가를 통해 시험분석비용의 최대 80%(기업당 2백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시행자 제공모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중모)은 지난 해 9월 시행한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한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제공모를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내민 민간 주도로 1.64km 규모의 해양레저관광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새만금개발청은 공모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우수한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공모 지침서 일부를 수정하고, 제공모에 나섰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해

안단 원부재 시험분석, 참고용 검사 등 대외활동목적이 아닌 내부 활용 목적의 검사에 소요된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지원 및 제의 항목의 자세한 내용은 경제통상진흥원 지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용 원장은 "우리 도 산업비중의 95%가 소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여타 지원사업에 비해 지원규모는 적지만,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 소기업들에겐 거름에 대비외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원도 소기업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업안내 및 신청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b.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711-205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설명도 받을 수 있다. /최대희 기자

해양레저관광산업 유치를 위한 복합단지 조성 취지에 맞게 총직접투자비 3천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제안해야 한다.

또한 새만금사업법 제8조에 명시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로 참여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접수된 사업제안서를 평가해 오는 6월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협상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업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 선정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